

## 양승조(부산상고 53회 동기) 1차 구술

1. 구술자: 양승조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12월 7일
5. 구술장소: 부산 수영구 구술자 사무실
6. 구술분량: 07분 03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첫 직장과 사법시험 준비 시절의 면모

구술자 : 우리 집에 와서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취직하고 나서는 완전히 우리 집에서, 집에서 직장을 다녔죠. 집 잡기 전에 몇 개월 동안에. 그리고 집에 모친이 도시락도 싸주고 계속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때는 우리가 취직 반이었기 때문에 농협에 시험을 쳤습니다. 친구는 ‘내 아니면 걸릴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정도로 자신을 하고 그때 집에서 뭐 저 하숙비 조금 온 걸 가지고 친구들끼리 막걸리 사먹고 다 써버린 기라. 근데 떨어졌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삼해어망<sup>1)</sup>에 그때 공채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월급이 뭐 이천(2,000) 몇 백인가, 삼천(3,000)원인가 정도밖에 안주니까 ‘월급 이거 받고는 못 하겠다’ 이래 항의를 하니깐 ‘그럼 나가라’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죠. 한 삼(3)개월쯤 근무했나? 삼(3)개월까지도 채 못했을 거예요. 한 달하고 한두 달 돼서 월급을 받아보니까 금액이 인제 얼마 안 되니까 그때 그래서 음, 월급이 작다고 항의를 하니깐 나가라 그래가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마옥당<sup>2)</sup>을 지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나도 그때 직장이, 직장이 썩 좋질 못해가지고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자’ 해가 마옥당 가서 몇 달 동안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건평이 형님이 지게 지고 다니면서 인제 저 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땀감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 한 삼(3)개월쯤인가 나도 공부를 하다가 아이고, 집안 형편 때문에 나가서

1) 정식명칭은 (주)삼해공업으로 어망제조 회사이다

2) 노 대통령이 첫 직장 ‘삼해공업’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작은형님과 봉하마을 들판 건너 뺨산 자락에 지은 토담집. 마옥당(磨玉堂)이라는 이름은 당시 노 대통령 부친이 지었고 여기서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노무현재단 엮음, 유시민 정리, 자서전 <운명이다>, 돌베개, 55쪽 참고

돈을 벌어야지 시골하고 도시하고는 다르거든. 시골은 돈이 없어도 먹고는 살 수 있는데 도시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부산에서는. 당장 애들 공부도, 동생들 공부도 해야 되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래가 나왔습니다, 그때. ‘니 혼자 공부해라 난 나간다’ 그렇게 됐고. 또 한 번 우리 집에 초량 산복도로 밑에 집이 있었는데 호박을 키운다고 호박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어봤어요. 거기 (노 대통령이) 밭이 빠져가지고 요즘 말로 똥떡<sup>3)</sup>이라 합니다. 떡도 해먹기도 하고 그렇게 인제 계속 왔다 갔다 했지요.

근데 직장은 어 노 대통령이 처음에 삼해 들어가서 몇 개월 있다 나왔고 그 다음에 마옥당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하다가 어느 날, 사진에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다쳤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울산에 가니까 한국비료 그때 현장에서 그 요즘 뭐, 옛날말로 노가다 작업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작업하다가 이빨을 다쳐가 이빨이 두개나 부러졌습디다, 앞니가. 그래 위문차 가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래 왔길래 부산에. 그때는 내가 광복동에서 사업을 할 때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때니까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시골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마 한 달에 한번쯤은 부산에 내한테 와가지고, 와가지고 인제 저녁에 저녁 되면 술을 한잔 하고 이랬는데. 술을 자꾸 사주니까 ‘시골에서 아무것도 내가 지금 모르는데 여기 나와 보면 너무 환락가다’ 이거지요, 광복동 자체가. “왜 이런 데 와서 술을 사주냐. 차라리 그 돈을 내 책을 사다오”,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책을 사줄게” 그때부터. 그때는 (내가) 사업을 하고 이래서 광복동에서 좀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책을 사가지고. 책을 처음부터 부산에 와서 샀지요. 책을 사가지고 “책만 봐가 니가 사시 걸리겠나?(사법고시에 붙겠나)” “아, 책만 봐도 된다.” 학원에 가면, 학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학원에는 안 갔습니다. 안 갔고 빨리 읽는 속독법부터 먼저 배우고, 속독법을 먼저 배워야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 그걸 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했지. 순전히 그냥 독학을 한 거죠. 학원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되겠나?” 이러니까 “아, 마 될 수 있다. 나는 한다.” “그래. 그러면 니가 한다면 해야지.” 그 이후에는 도

---

3) 어린이가 똥을 누다가 똥통에 빠졌을 때 부모가 급하게 만들어 주는 떡. 변소 귀신을 위해 쌀가루로 만든 쌀떡이었다. 대개 송편만큼씩 동그랗게 100개 정도를 만들어, 변을 당한 아이가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주었다. 이때 이 아이는 “똥떡, 똥떡” 하고 외치며 이웃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만 비로소 그 액운을 면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엮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6, 참고

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고.

군에 갔을 때도 제가 출장가고 없으면 휴가를 오면 우리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지 혼자 자고가고 내 동생들을 저는 이제 기억을 못하는데 동생들 기억이 뭐 앞드려뻘쳐 하고 훈련도 시키고, 동생들 전부 앉혀놓고. 그런 식으로 집에 막역하게 서로 니내(너나)없이 다니는 그런 입장이었고. 군에 가서 가끔 편지가 오고 휴가 오면 저한테 와서 집에 갔다가 우리 부산 쪽으로 오게 되면 어차피 저한테 오는 거고 안 그러면 집에 가는 거고. 그때는 진영역에 버스타고 가서 진영버스정류소에 내려가지고 한 한 시간쯤 걸어갑니다. 고 안에까지 걸어가는데 거의 중간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고. (마을)입구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연못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여름엔 거기서 연못에서 목욕도 하고. 한번은 목욕하는데 이 친구가 내 옷을 들고(웃음) (도망가서 저도) 빨가벗고 따라갔거든요. 마을까지 뛰어갔어요. 그래 (자기가) 놀래 뒤돌아보니까 빨가벗고 가니까 옷을 집어던지고 가고….

#### ■ 구술자 주요이력

1948. 부산 출생

1966.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1970.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2년 중퇴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53회 동기로 고등학교 시절 같은 독서실에 다니다 친해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마옥당에서 함께 사법고시 준비를 한 적도 있다. 노 대통령의 결혼식에 초대된 두 명의 고등학교 동기 중 한명이기도 하다. 그런 인연으로 이후 노 대통령의 주요 선거 때마다 힘을 보탰다.